

과학기술처 인사

과학기술처는 8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을 하였다.

- 원자력국 정책과장 崔相勳(안전심사실 과장)
 - 원자력국 정책과 전기기과 片京範(안전심사실 계장)
- * 팔호내는 전 보직임

“고창순박사, 일본 국제회의 참석”

고창순박사(서울대병원 부원장)는 지난 7월 13~23일 일본 동경 Keioplaza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갑상선 심포지움 및 국제 내분비 학회에 참석하였다.

발표논문제목은 “Blocking antibody in Nong-oitirous Myxedema”이었다.

“科總, '88學術會議 夏季심포지움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朴泰原)가 주최하고 科學技術處가 후원한(협찬: 한국과학재단, 서울대학교) 하계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7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이번 심포지움은在美·在加·在歐·在日 한국과학기술자 14명이 국내 대학교수, 연구원, 산업체 연구개발 담당자 등 70여명과 함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첨단 기술정보를 교환하였다.

5월 在外연사 등록으로 시작 대회장 예방·협의회, 6일 개회식·학술 발표·축하연(대회장 주최), 7일 학술발표·환영연(서울대총장 주최)순으로 진행되었다.

6~7일 양일간 서울대문화관과 전자계산소에서 실시된 학술발표는 수리과학분과(해석학과 그 응용), 물리과학(고온초전도체), 생명과학(신경기능에 관한 분자 생물학적 연구), 산업공학(생산자동화), 농업·방재과학(작물의 품종개량, 자연재해), 과학산업분과(극한기술: 고진공·극저온·초고온), 우주과학(Space Data 응용과학·발사 및 위성체 기술)등 7개 분과에서 84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심도깊은 학술토론과 최신과학기술 정보교환으로 연인원 2천여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원자력학회, 제3차 原電 熱水力學 / 運轉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원자력학회(회장 한필순)는 “제3차 原電 熱水力學 / 運轉에 관한 국제회의”를 오는 11월 14~17일 웨라톤 워커히에서 개최한다.

동회의에 관련된 발표 논문은 250편이상이며 외국인 300명, 국내인 2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동 기간 동안 원자력산업회의가 “서울 88 원자력 전시회를 개최한다.”

“UNDP / IAEA / RCA NTC on NDT 실시”

한국에너지연구소(소장 한필순)와 NDT학회가 공동주최하는 UNDP / IAEA / RCA National Training Course on NDT를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동과정은 IAEA전문가와 국내 전문가인 박대영, 이한영, 강석철, 박은수, 안희성 강사가 국내 비과파 종사자를 위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10월 17~11월 4일은 UNDP / IAEA / RCA Regional Training Course on NDT Eddy Current -2가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NDT학회, ASNT Level III 시험 실시”

한국비파괴검사학회(회장 정문규)는 지난 7월 12~14일 역삼동에 위치한 반도유스호텔에서 ASNT (Americ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Level III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응시자는 39명이었다.

“原産, 會員社 懇談會 開催”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회원사 간담회를 金善昶 原産 부회장과 韓國電力技術(株) 閔景植사장을 비롯한 다수 회원사가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5일 한국전력기술(주)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전력기술(주)의 일반 사향과 전산업무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原産측에선 서울 88 原子力展示會 안내, 原子力의 國民 홍보에 관한 협조, 회원사 간담회 활성화 대책 및 기타 公知事項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原産, 弘報資料 3, 4집 발간”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 한봉수)는 '88년도 홍보자료 3집과 4집을 발간, 관련기관과 회원사에 배포했다.

원자력발전 10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이해 심포지움」에 때맞추어 간행된 이 홍보책자는 심포지움 참석자들에게도 배포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제3집은 「電源選擇을 위한 경제성 평가」로 한국전력공사 전원계획처에서 원고제공을 받아 전편 수록했는데, 發電源을 선택함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의 방법과 實例가 소상히 기술되어 있다.

제4집은 「原電 10년의 回顧와 展望」으로 原子力略史, 運營現況, 原子力의 利點과 寄與度, 앞으로의 課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집필은 古里原子力 제2발전소의 洪周甫소장이 맡아 주었다.

“RI취급 면허자가 핵의학검사업무 맡아야”

—의료기사법 시행령개정 의견제시—

핵의학을 이용한 검사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3년여간 팽팽히 맞선 가운데 관련학회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학협회가 취합한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방사선의학회, 대한핵의학회의 의견은 체내·체외를 막론하고 핵의학적 검사는 임상병리사든 방사선사든 RI취급면허자가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임상병리학회는 체외검사는 방사선사가, 체내검사는 임상병리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 의료기사법 시행령중 업무범위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의학회는 RI취급면허자이면 방사선사이든 임상병리사이든 상관없이 핵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체내검사는 분명히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핵의학회는 RI를 이용하는 핵의학 검사는 체내·체외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동위원소취급면허 의료기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의협이 요구한 별도의 의견요청시에는 체내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체외검사는 방사선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결국 핵의학적 검사중 체외검사는 RI취급면허를 가진 임상병리사가, 체내검사는 역시 같은 면허를 가진 방사선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관계학회들의 의견이라고 집약된다.

보사부는 의료기사법시행령개정을 위해 이같은 의견조회를 의협에 요청했었다.

통신교육 설문조사

당 협회는 '88. 4. 12~'88. 5. 21동안 '87년도 제 1회 통신교육수료자(169명)에게 통신교육에 관한 의견설문서를 송부하여 수강생들의 요망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이 설문서 자료는 지도교수 회의의 토의자료로 보다 효과적인 통신교육 실시에 활용될 것이다.

기술정보자료의 보급

당 협회는 각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 및 방사선이용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기술정보자료의 보급 계획을 세워 '제18차 일본 아이소토프·방사선 총합회의 보문집'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각 회원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우선 지난 7월에는 일차적으로 의료기관등(의료기관 종사 개인·평생회원 및 임원 포함) 90개 기관에 '의학이용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자료를, 그리고 용영물산(주)에는 '식품조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의 자료를 보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에는 자료를 한번 더 보낼 계획이며, 다른 산업기관에도 내용별로 분류하여 각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